

1. 목표 및 배경: 한국민족 문화의 시원 도는 원천을 논하기 위해 한국 신화 비교론이 무엇을 어떻게 공헌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

; 한국 신화 시원론-> 넓게는 시베리아, 좁게는 동북아시아 지역 여러 원주민 신화 사이에서 그려질 상호 대비성 및, 몇가지 원칙을 부각시키는 차원. (뒤메질 학파의 '인도-유럽 비교 신화학'이 엄정한 학문으로 확립된 것에 비하면 여전히 아시아쪽은 단편적이고 산발적)

2. 반경-> \*시베리아 지역; 바이칼 호 주변의 몇 종족들, 예컨대, 야쿠트족, 에벤키족, 아무르 강 유역의 몇 종족, 나나이족, 울치족, 오로치족 캅차카 및 추코트카 반도에 산재하는 일부종족, 축치족, 코라크족, 이텔멘족 등. \*인종적-> 투르크족, 몽골족 통구스족, 원 아시아족 그러나 으라시아 북반구 전역에 걸친 엄청난 규모의 보편성이 있는가 하면 지역적 특성에 따르는 국지적 보편성 또한 엄청난 규모. 그러한 보편성이 종족의 차, 언어의 차이를 능가한다는 가능. ex) 곰 신앙의 예(p. 102)-> 한스 요하임 파크로드(곰 축제에 관한 집약된 업적을 남김)의 『곰 숭앙에 관한 연구』; 파크로드의 학위논문인 이 책-> 곰 신앙은 야쿠트, 길야크, 램족, 핀족, 북아메리카 원주민들 까지 범위 확장, 거의 범세계적 수준.

\* 시베리아 원주민 사이의 질병관 또는 질병 원인설 및 그에 대응된 치료술-> 극히 일반적인 민족 의술에서의 질병의 원인; 1) 금기의 파괴 2) 영혼의 상실. 3) 귀신의 침입. 4) 벌레의 침입. 5) 투사 ;->핀란드의 민속학자인 로리 흥코가 『질병의 투사』에서 범주화, 범인류적 시각에서 다섯가지를 추적, 제시(p. 104-117).

(1)영혼의 상실, 벌레의 침입(104), 귀신의 침입(신라의 처용가, 일본의 신혼담 -105-106): 신령과의 성적인 접촉으로 샤먼이 되는 과정과 한국의 처용전승에서 신령과의 성적 접촉으로 발병하게 되는 과정이 서로 대응 -> 금기의 파괴, 귀신의 침입, 벌레의 침입등에 의해 한국인의 질병은 크게는 자연의 재앙, 액에서부터 작게는 사회의 재앙, 액과 상동관계에 있다는 점이 강조 되어야 함. 자연과 사회가 걸리게 될 질병이 재앙 또는 액이라면 한 개인이 당하게 되는 재앙과 액은 다름아닌 질병.-> 결과적으로 한 민족 또는 종족의 질병 원인 설명 및 이와 관련한 치료술은 그 민족 또는 종족의 일반적인 고유 신앙 체계 및 민속체계, 우주론, 영혼관까지 포함한 민속체계와 무관하지 않음

-> 핀타이젠이 샤먼의 이른바 '전환된 의식 상태'를 히스테리아로 호칭한 이후 신경계 환자로서의 샤먼은 분열증, 혹은 파라노이아의 병명-> '무병'이라고 까지 일컬음. 샤머니즘과 치료 주술의 관련성에 의거한 레비스트로스는 샤먼의 치병의 효율성을 -> 인식 가치와 상징 가치 로 묶어 설명; 엘리아데의 탈환과 접신의 양분법을 깔고 동시에 신령 접신 (spirit-possession)/ 신령 매체(spirit mediumship)샤머니즘'으로 구성되는 퍼스(R. Firth)의 삼분법과도 견줄만한 대목(107-115)-. 구스타브 랑크의 『샘족 신화속의 신화적인 루토』; 루토 신의 정체를 해명하기 위해 북방 유라시아 전역에 걸친 질병관과 치유 이론을 추적; 질병은 개인적인 문제의 차원에서는 다른 객체들, 예컨대 동물에게로 전이될 수 있고 그 결과 치유가 가능해진다는 이론이 북방 유라시아에서 널리 발견됨-> 전이의 방법; 환자의 짐승을 끈으로 묶는 방법, 시각적인 접촉을 하는 방법, 환자로 하여금 동물의 심장에 입맞춤하게 하는 방법-> 동쪽 시베리아의 야쿠트과 통구스족-> 직접 동물에 전이하는 방법 외, 동물의 조형물이나 이미지에 전이하는 방법-> 한국의 유사한 예; 닭이나 제용 인형에게 전

이하의 방법->이러한 주지는 동물령으로 화신한 샤먼이 병령으로 관념화된 짐승과 추쟁함으로써 환자를 치유하게 된다는 또 다른 사례와 모순하지 않음; 한국에서는 해모수와 하백, 탈해와 수로 사이의 동물 변신 투쟁의 주지가 발견되고 있음. 비교 시도의 가능성 시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 연구는 일반성과 보편성이 지역차를 넘어서 얽혀있고, 다시 인종적, 언어적 차이를 넘어선 넘나들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지고 한 지역이나 인종 그리고 문화의 역사적 맥락을 잡아대기는 어렵다. but 비교 연구를 위한 난관의 논란 가운데서도 시키토-시베리아 동물의장은 매우 중요한, 비교적 낙관적인 시야를 열어줄 단서가 될 가능성.

\*스키토 시베리아; 우랄 알타이 보다 훨씬 더 광역에 걸친 지리적 문화적 용어로서 기원적 10세기 중초반에 유라시아 대초원 지대, 즉 헝가리에서 중국을 걸쳐서 공통의 유목, 목축문화가 전파; 주로 이란인에 의해 운반된 이 문화는 말차장, 무기, 예술등에 유명한 '동물 의장'으로 일컬어진 '스키토 삼각'을 형성한 것이다. 스키토-시베리아 동물 의장의 본질은 동물주체가 지배적인 테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대초원 환대의 내부적 통일성과 공통의 진화론적 경향에 의지해 매우 두드러진 개성을 보여준다-> 그 분포는 엄청나게 넓은 것으로 중앙 아시아에서 몽골과 만주 그리고 대초원지대, 산악지대에서도 발견. 그러나 스키토-시베리아 동물의장의 경우는 그 전체 북부 유라시아 지역에 걸친 보편성 이외에 지역 차이를 지닌 특수성 즉 유럽, 몽골 및 남부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등지의 국지적 공통 특수성이 지적될 수 있는가 하면 시대적으로 전 스키토 시대, 전기 스키토 및 중기, 후기 스키토 시대 등으로 가름해 낼 수 있음.-> 고구려의 사례에 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어 북부 유라시아 대륙의 문화 일반성에 대한 아연. 그러나 tm키토-시베리아 동물의장은 다른 분야의 역사적이고도 점진적인 순차적인 변이가 추적될 만한 보편성을 전제로 한 국지적 변이가 순차적으로 추적될 수 있다면 한국 상고대 문화 원류 캐기를 위한 작업은 상사한 전진적인 전망을 확보할 수 있다.

### 3). 문화원류캐기의 바람직한 화제들;

\* 스티도-시베리아 동물의장, 범시베리아적 인 영혼관, 가옥 구조, 곰 숭앙, 질명과, 우주 구성론 의 샤머니즘 등의 논의.-> 샤머니즘의 구성은 다시 교리체계, 우주관, 종교 및 사회 문화적 기능, 등 범 시베리아적인 보편성 및 그것을 전제로 한 지역적 개성이 추구, 그 외의 다른 화제들이 적, 간접적으로 샤머니즘과 무관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모든 화제의 주심은 샤머니즘이라는 단정이 가능. 샤머니즘은 과거 인간이 가졌던 한시적인 종교라거나 아니면 인류 사회에서 극해 국지적인 종교라고 판단할 사람은 있을 수 없음-> 그 이유는 인류가 공통으로 경험한 바 있고, 오늘날에도 그 경험이 계속되는 범인류적 종교이기 때문. 이러한 범 세계성을 고려할 때 샤머니즘은 '샤머니즘 복합체'라고 부름으로써 역사 사회 문화적 복합성을 강조할 필요성이 부각.-> 복합체로서의 다양성이 전제가 될 경우에 샤머니즘의 형태나 속성에 관한 단일한 동질성을 가상하기는 어려움. 지역성 언어적 자질, 종적성 그리거 역사성 등에 걸쳐서 구심점이 잘 잡혀져 있는 '순종' 같은 것은 예상키 어려움. 동일 종족 사이라도 이중 언어 또는 다중 언어 사용이 실제하고, 따라서 문화적 혼용의 상태가 빚어지듯 샤머니즘이란 종교 현상에도 당연히 이질적인 것, 외래적인 것의 공시적 혼재가 오히려 문화적 특징소로서 부각된다. 이것은 적어도 샤머니즘 복합체를 두고 한 지역 또는 종족 내지는 문화권에 한정된 단일 원형, 순종 원형을 추출하고 그것과 한국의 샤머니즘을 일대일로 견주면서 우리의 원류를 찾기가 지난하거나 아니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혹시 가능하다고 해도 오류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점 또한 시사하게 된다.